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협의회 공식 출범

초대회장에 박준성 (썬가리온 대표)
車·에너지 등 총 106개 기업 참여
“실천 중심 신뢰 공동체 만들 것”
“미래산업 선도 중심축 기능 역할”



박준성 회장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의 실질적인소통과협력을 통해 상생과 공동발전을 도모할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협의회(협의회)’가 지난20일 광주이노비즈센터

에서 공식 출범했다.

22일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2023년 4월 광주경제자유구역청 주도로 구성된 입주기업협의체에서 출발했다. 이후 2024년 11월 창립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12월 세무서 단체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자율적 협의체로 법적 기반을 갖췄다. 이날 출범식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출범식에는 입주기업들 비롯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민병배·정진욱 국회의원, 김병내 남구청장, 광주경제자유구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간 상생과 공동 발전을 도모할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협의회’가 지난 20일 광주이노비즈센터에서 공식 출범했다.

역청 선석기 청장,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주요 유관기관장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초대회장으로 공식 취임한 (썬가리온) 박준성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광주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광주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전략 거점이 돼야

한다”며 “협의회는 기업 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끄는 중심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 방향으로 △협장 중심 조직 △기업간 협력 구조 조성 △공동체 강화 등 세 가지 기조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현장 중심의 실천력 있는 조

직을 구축하겠다. 입주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에 나서는 실행력을 갖춘 조직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뢰와 연대의 플랫폼 조성에도 나서겠다”며 “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협력 구조를 만들고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유기적 네트워크를 지향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대외적으로는 행정과 제도에 대한 건설적 목소리를 내고, 대내적으로는 회원사 간 유대를 강화하는 ‘신뢰 기반 공동체’를 구축하겠다”며 “협의회가 입주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직,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형식보다 내용을, 말보다 실천을 중시하는 회장이 되겠다”고 협의회의 위상 제고 및 공동체 강화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협의회에는 총 10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중 회비를 납부하고 주요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은 40개사다. 주요 입주분야는 △미래형 자동차(79개사) △스마트에너지 I(22개사) △스마트에너지 II(5개사)로, 광주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전략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중심이 돼 활동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향후 지역 산업 생태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광주가 미래형 첨단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는 핵심적인 민간 주도 협력체로 거듭나기 위해 △입주기업 간 협력 강화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공동사업발굴 △대정부·대지자체 소통창구 역할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광주신세계, ‘에이틀리에 화실’ 체험 팝업 운영

베어브릭·캔버스페인팅 다채

(썬)광주신세계가 쇼핑 공간을 넘어 예술 체험이 가능한 이색 팝업을 선보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나만의 작은 화실’ 콘셉트로 꾸며진 ‘에이틀리에 화실’ 팝업을 오는 30일까지 본관 1층 이벤트홀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에이틀리에 화실’은 부산광역시와 경북 경주시 등에서 ‘아이와 가볼 만한 곳’으로 알려진 드로잉카페로, 최근에는 이색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 연령 대상으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예술 체험이 가능하다.

이번 팝업에서는 △베어브릭 DIY 키링 세트(1만5000원) △캐릭터·원형 스마일 캔버스화(5만5000원) △베어·버니브릭 캐릭터 토이아트(4만9000원) △빈티지 LP바이닐·하트 미러 아트(거치대 포함, 4만5000원) △명화 2절 도안 페인팅(액자 포함, 6만9000원)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곰·토끼 피규어에 전용 물감으로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토이아트 체험이 가장 인기다.

앞치마·팔토시·모자 등은 무료로 대여 가능하며 체험 시간은 90분이다. 키즈 체험시 1명의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며, SNS 팔로우 이벤트 참여 시 물감·붓세트 등 사은품도 증정한다.

윤준명 기자

현대차, 모빌리티 기술인력 신규 채용

현대차가 하반기 기술인재 채용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는 전동화를 비롯한 미래 산업 트렌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모빌리티 기술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며, 서류 접수는 24일부터 30일까지 총 7일간 진행된다.

이번 채용에서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R&D 기술인력 △배터리 기술인력 등 3개 부문의 인재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연령·성별 제한은 없다. 모집 부문별 세부 요건은 서류 접수 기간 동안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https://talent.hyunda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남성 지원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

현대차는 7월 중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7월 말 인·적성 검사, 8월 1차 면접, 9월 중 최종 면접과 신체검사를 거쳐

10~11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자동차 생산 부문 합격자는 11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국내생산공장에 배치된다. R&D 기술인력, 배터리 기술인력 부문 합격자는 11월 중 각각 남양, 의왕 연구소에 배치된다.

박소영 기자

제 1177회 로또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7	15	16	19	43	21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	
1등	6개 숫자 일치				45억7000만원	
2등	5개 숫자+ 보너스 숫자 일치				6102만원	
3등	5개 숫자 일치				147만원	
4등	4개 숫자 일치				5만원	
5등	3개 숫자 일치				5000원	

광주 자동차 기업들 “전문·청년인력 채용난 여전”

광주상의, 車산업 상생협약 간담회

중기 기피 등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인건비 부담 완화·장기근속 지원”

광주지역 자동차산업 기업들이 숙련된 전문인력 및 청년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주지역 자동차분야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자동차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동차산업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썬)뉴런모터스, (썬)부성사프트, (썬)대웅에스앤티 등 현대·기아 협력업체 12개사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노사발전재단 등 기업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안내, 지원기관 사업 소

개 및 연계방안 검토 등의 순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공유했는데, 그 중에서도 숙련된 전문인력 및 청년인력 채용에 대한 어려움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특히, 심각한 청년인구 유출과 청년층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맞물리며, 기업 현장에서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기업 홈페이지, 홍보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 확대 등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광주상의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근로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한 안착지원금·도약장려금·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및 건강검진비 지원 등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상세히 안내했다.

유관기관들 역시 청년 및 중장년층 대상 구인·구직 알선 사업과 신규·재직자 대상 교육지원, 유관기관간 기업 및 재직자 지원 프로그램의 효율화를 위한 상호 연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 분야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기로 했다.

광주상공회의소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의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체결한 현대차·기아·고용노동부가 협약을 통해 시행 중인 ‘자동차산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은 작년 한 해 총 38개사, 238명을 지원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화재 지역경제 충격 최소화”

광주시, 민관합동 TF 제2차 회의 협력사·소상공인 지원책 등 논의

광주광역시시는 지난 2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특별팀(TF)’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기존 TF 운영방식을 보완·강화해 노동계, 협력업체, 피해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화재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면밀히 분석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

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월 2차례 정례회의를 개최기로 했으며, 시민 체감형 지원책 마련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광주시 관계부서를 비롯해 시의회, 광산구, 금호타이어, 경제단체, 환경전문가, 주민대표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분과별로 △협력업체 지방세 지원 △협력업체 근로자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2차

환경피해 예방 조치 등을 논의했다.

또 △소상공인·협력업체 지원대책 △공장복구 행정절차 단축 △협력업체 노동자 권리보호 △중금속 등 분석결과 공개 △장마철 대비 오염물질 하천 유입차단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민관합동특별팀은 △경제분과 △고용분과 △환경·보건분과 △주민지원분과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실무 논의를 통해 종합대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고광완 행정부시장은 “민관합동특별팀 회의를 정례화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